

신안 우이도, 볼거리 가득한 특화마을로 조성

‘우이도 진리 경관개선사업’ 준공식...도초면서 뱃길로 14km 20억 투입 독특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어촌테마마을 새단장

신안군은 낙도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 유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이도 진리 경관개선사업’ 준공식을 지난 3월 12일 개최하였다.

도초면에서 뱃길로 14km 떨어져 있는 우이도는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선생, 자산 어보의 저자 정약전, 조선 최초의 필리핀어 통역사 홍어장수 문순득 등 많은 역사인물과 동양최대의 모래언덕, 조선시대 옛선창 등 역사자원문화유산이 가득한 섬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신안군에서는 우이도 마을의 아름다운 비경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특화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먼저, 노후된 마을안길 황토포장과 돌담쌓기, 찻지공원, 안전난간 설치, 방송시스템, 노후 가로등 교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요 진입로의 아스콘 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 벽면에 깨끗한 흰색과 아름다운 백서향(천리향) 벽화를 채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선착장에 표해시말의 주인공 문순득 광장을 조성하여, 물으로 오가는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공간과, 정약전 유배생활의 (1801~1816) 처음이자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 마을앞에 동상과 쉼터를 설치하여 공동체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우이도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어촌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방문객의 쾌적한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백서향의 섬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고”...‘플로깅’ 활동 추진

함평군은 군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놀이도 뛰하니 플로깅 하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인 ‘놀이도 뛰하니 플로깅 하자!’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한다.

참여자들은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지참하여 정해진 코스에서 1시간 동안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봉사활동 실적도 1시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365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깅’은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말한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영광군은 지난 7일 민원 편의의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등 기기를 확충하였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창구 민원량에 따라 군서면과 군남면 등 우선 2개 면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기기가 오래된 영광읍, 흥농읍, 법성면 3개 읍면사무소는 기기를 교체하였다. 군은 이번 확충으로 8개 군·읍면과 6개 금융기관 등 모두 14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졸업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16개 분야 112종이다.

군은 지난해 12개소에서 운영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54,808건의 민원을 발급하였다. 무인민원발급은 본인 지문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하고 창구 방문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특히 비대면 발급으로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최근 이용률 향상 및 주민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가족센터, 미래 설계 프로그램 운영 21일부터 28일까지 총 4회...결혼 이민자 한국 정착 과정에 큰 도움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에서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 ‘미래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 초기 이후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와 맞물려 자녀 교육과 경제적 상황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을 점검, 원활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 관계자는 “미래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버스·택시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이달 말부터 1인당 100~150만원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수요 감소 및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기사 소득 안정자금과 시내·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서 기사 1인당 100~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감소가 증명된 운송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며, 시내·전세버스 기사는 '22.1.3일 이전, 택시기사는 '22.1.1일 이전 입사한 운수종사자가 해당된다. 버스기사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시로 제출하면 된다. 택시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를 통해 시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의 총 지급대상자는 법인택시 기사 502명, 시내버스 기사 331명, 전세버스 기사 200명 등 총 1,033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매출액 감소 및 근무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환경 정화활동 실시

운영위원 20여 명 쓰레기 줍기·화단 제조작업 등 펼쳐



무안군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성곤)는 최근 봄을 맞아 주민들에게

더 나은 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